

르포 … 적조 주의보 내려진 여수 앞바다 가보니

전남도 “황토 살포 자체” … 어민들은 “한마리라도…”

뙤약볕 5시간 스크루 돌리며 ‘붉은 땅’과 전쟁

물감 뿌리듯 200m 넘어… 양식장 덮칠가 조마조마

지난 19일 오후 여수시 남면 가두리 양식장 앞 바다, 어선에 탄 어민들의 얼굴엔 불안감이 가득했다.

어민들은 숨이 끊까지 차오르는 불볕 더위에도 불구하고 5시간이 넘도록 어선 스크루를 돌려 ‘붉은 죽음의 땅’을 부수느라 여념이 없었다. 봄이 젖은 솜마냥 무거웠지만 어민들은 붉은 땅에 양식장을 덮칠까 봐 쉬지 않고 스크루를 돌렸다.

방해 당국이 이날 여수시 소속 64t급 어업지도선을 타고 찾은 여수시 남면 화태리 앞바다에는 이미 물감을 뿌려 놓은 듯한 겹붉은 적조 땅이 200

m 가량 진을 친 채, 금방이라도 양식장을 덮칠 듯 널夙거리고 있었다.

공무원들은 여수·고흥 일대에 적조 주의보가 발령된 18일부터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붉은 땅’의 규모와 기세에 잠뜩 긴장하며 지도·행정선·정화선을 총동원해 날마다 예찰을 하고 있다.

황동열 여수시 어업생산과 과장은 “장마로 토양에 있던 영양염이 바다로 밀려온다. 일사량 증가 등으로 적조 주의보가 내린 시기로 지난해보다 10여일 정도 빠르다”고 말했다.

화태리에서 돛·우류 가두리 양식을 하는 박한명(59)씨는 이날도 7척의 배를 동원, 양식장 주변을 돌며 물흐름에 맞춰 스크루를 돌려 적조 땅을 밀어내느라 안간힘을 썼다.

물흐름에 맞춰 스크루를 돌리면 바다표층에 떠 있는 적조가 흩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게 어민들 설명이다.

박씨는 그러나 “아무리 면세유라지만 기름값만 8~10만 원가량 든다”면서 “밤에는 수온이 떨어져 적조가 덜하지만 언제 양식장을 덮칠지 몰라 잠도 못자고 있다”며 걱정했다.

현장 어민들 사이에서는 전남도가 황토 살포를 자체로 했다는 소식에 대한 불만도 가득했다. 전남도는 적조 방제에 쓰이는 황토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최근 사용 자제를 각 지자체에 권고한

상황이다.

반면, 어민들은 바다에 황토를 뿐만 아니라 적조생물에 달라붙어 함께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산소 차단막을 깨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언제 밀어닥칠지 모르는 적조띠를 감시하면서 어선 스크루를 돌리는가 하면, 여수시가 3만8000t의 황토를 놓은 비축 해 놓은 지역에서 직접 황토를 펴 날라 양식장 언저리에 뿌리고 있는 형편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 기준을 적용하면서 양식 어류를 방류하라는 전남도 입장에 분통도 터뜨리고 있다.

여수시 남면 김근평 어촌계장은 “감성돔은 판매가가 kg당 1만원이 넘는데, 전남도 보상기준은 치어 한마리당 160원·성어도 2680원에 불과

해 선뜻 방류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정부가 보험비의 70%를 부담해 주는 양식재해보험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입률이 낮은데다, 가입하려고 해도 정부가 지원해주는 예산이 부족해 가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수만 하더라도 가입 대상인 489곳 양식 어가 중 재해보험은 68곳만 신청했고 이마저도 37곳만 가입됐을 뿐 나머지는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래저래 어민들은 지자체도 정부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다를 떠돌며 적조띠를 없애느라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용전들노래 재연

21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전동 용전마을 들녘에서 유두절 한마당행사가 열린 가운데 (사)용전들노래 보존회 회원들이 ‘용전들노래’를 재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초중고 이번주 여름방학

폭염 식히는 장맛비

21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 18일 광주여고·전남여고를 시작으로 고등학교는 22일, 중학교는 22·23일 대부분 방학한다. 초등학교는 임곡초가 오는 25일 가장 먼저 방학에 들어간다.

개학은 중·고등학교는 8월 16일께, 초등학교는 9월 2일께 할 예정이다.

전남지역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22일 방학을 시작해 4주동안 쉰다. 초등학교는 29일께 방학해 9월 2일 개학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지난 주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3~4도가량 높은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을 들어 최고 기온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 무더위는 이번 주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다소 수그러질 전망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이 본격적으로 남하하는 24일 오후부터 26일에 비 소식이 있겠고, 기온도 평년 수준인 21~28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잔여세대 분양중

지리산 노블랜드

산좋고 물좋은 백운산 400고지

콘도/팬션/별장/요양시설
귀농자, 요양자 10% 할인
국유지 필요평수 임대 가능
(신심, 약초, 산나물, 헛발 사용)
화개장터, 쌍계사, 화엄사, 노고단 근접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H. 010-4451-6686 / 법무사 직접상담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5940만원	18평 3000만원 가능
28평(26실) 9240만원	28평 5000만원 가능
56평(1실) 1억 8480만원	56평 1억원 가능

지리산 노블랜드 분양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직통 : 010-3605-5000 / (주)오천경매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미® 단열복합시트방수

1. 시공전 / 단열베이스기판시공
2. 단열베이스카페 / 트라이슈미 시공
3. 트라이슈미 탈코팅 시공
4. 시공 후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대한고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탤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062) 511-0444 대리점 (062) 511-0444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